

PE필름업계



이 호근
한국프라스틱공업(주) 대표이사

시작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0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사년의 붉은해가 용솨음치듯 솨아올라 온 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하는 첫번째의 경제지표인 1/4분기의 GDP는 팔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과연 IMF를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으나 달이 거듭할수록 경제침체는 계속되어 결국 4/4분기의 GDP성장율은 6%대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다행히도 1/4~3/4분기의 고도성장으로 GDP 평균성장율을 9%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4분기의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현상으로 미뤄보아 2001년의 경제는 1997년 IMF가 닥칠 당시보다 더 심한 경제한파가 몰아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내수는 감소될것으로 예상되고, 대외 수출시장도 미국의 2001년도 경기역시, 금년 성장율보다 감소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동남아국가들 중 대부분 국가와 달러화대비 자국화폐의 가치 절하 등으로 인하여 중요 수출지역의 수출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1년에는 내외수요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구매력이 떨어질 때는 연포장용 PE필름은 특히 민감한 영향을 받아, 2001년은 작년수요(약20,000 M/T)을 유지하거나 미미한 증가율(약3%예상)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최근 단행한 제2단계 기업구조조정과 공공개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효율을 높이므로 대내외의 신인도가 상승하여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것으로 확산되며,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월간 포장계 -